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1)

- 19세기-20세기 전반기에 제시된 미래주거 계획개념을 중심으로 -

The Historical Research of the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1)

- Focused on the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 proposed from the 19C to the beginning of the 20C -

김미경* / Kim, Mi-Kyoung

박영순** / Park, Young-Soon

Abstract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People have been exploring the future of each field. Accordingly, In the area of housing, the increase in income level and high technology development facilitated full scale research on the futur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ry to set up a systematic theory on the future housing by investigating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future housing and development of the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 A document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 of three periods from its origin in the 19th century to present : the burgeoning period, growing period, and maturing period.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xamines development of the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 from the 19th century, in which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 was emerged, to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 the burgeoning period. The future housing planning concepts of this period are analyzed as follows :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cept such as "ideal city", "high rise apartment housing" and "industrialized housing" was formulated.

키워드 : 미래주거, 미래주거 계획개념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의 역사에서 보듯이 새기말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천년(밀레니엄)단위의 전환기적 시점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로 향한 장기진망을 내놓게 된다.

최근 주택분야에서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미래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주거의 필연적 추세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 양상으로서 주거 건물의 초고층화, 해상도시, 우주도시, 공중 도시환경 및 생태도시, 주택의 오토메이션화, 인텔리전트 빌딩, 지하공간의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미래주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건설업체들은 미래주거에 대한 청사진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구에서 개발된 많은 미래주거론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서구의 건축문화를 표피적이고 모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주거 계획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미래주거 계획개념이 태동하게 된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제시된 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연구조교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1.2. 연구의 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선정

미래주거 계획개념이 제시된 배경을 파악하고 미래주거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간된 주거 및 건축의 발전배경과 해당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다룬 국내외의 건축 및 주거학 관련 문헌, 사회학 관련문헌, 정기간행물 등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2) 미래주거의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단위주거 뿐만이 아니라 몇몇 도시계획 차원의 주거단지 계획(town planning)을 사례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19세기 이래 미래주거 계획에 관한 많은 구상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단지역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 본 미래지향적 제안으로 평가되는 것으로서, 문헌 상에 미래주거로서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선정하였다.

(3) 사적(史的)고찰을 위한 시기 구분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발전과정을 서술할 경우 중요한 점은 논의의 시점을 언제부터로 하느냐 하는 점과 변화의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시기의 구분은 주거문화의 흐름이 사회문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발전단계에 대한 이론과 미래주거의 발전과정 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였다.

우선 사회의 발전단계이론에서 살펴보면, 미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발전이 있어 주요한 변화의 시기를 19세기, 1960년대, 1990년 대로 보고 있다¹⁾. 그들은 기술혁신이 인간의 생활기반인 산업의 성 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삶 전체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질적변화에 따라 주거의 질적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주거의 발전단계이론을 통해서 보면, 미래주거계획개념 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의 논의의 시점을 19세기 이후로 상정한 이 유는 미래에 대한 제안들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나²⁾ 미래주거에 대한 제안은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되기 때문이

다³⁾. 또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를 성장기, 그 이후를 성숙기로 구분하는 방식은 '주택의 근미래상(住宅의 近未來像)'에 실린 히라하라 모리야끼(廣原盛明)⁴⁾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 다. 1990년대 이후를 미래론의 성숙기로 보는 이와 같은 시기분류적 관점은 위에서 밝힌 사회학 분야에서의 미래학자들의 관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같은 시기구분은 1960년대 이후에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공과 해결능력이 사회개조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정되었고, 극단적인 형태 의 미래주의적 성격을 띤 도시주거에 대한 실험적 제안들의 절정기 를 이루었다는 측면⁵⁾에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미래 주거론의 효용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960년 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성장기'로, 1990년대 이후를 '성숙기'로 구분 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는다.

한편,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시된 대부분의 미래주거에 관한 제안들은 기술력의 부족과 지나친 이상향에 치우쳐 대부분 계 획안으로 그치게 되며, 이러한 제안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 진 1960년대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실현되므로 이 시기를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태동기'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분류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19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의 3기로 구분하 였다.

1.3. 연구의 범위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분류 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의 3기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 체적인 시간적 범위는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태동기'로 한정한다.

1.4. 미래주거의 용어정의

미래라는 용어는 '앞으로의 전망, 전도'를 뜻하며, 주거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인간의 생활·삶'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살기 위 한 집이라는 개념의 주택과는 용어상의 차이점을 지닌다⁶⁾. 건축법규 나 도시계획법규에서 주거지역을 '주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 한 지역'으로 정의하여, 주거가 거주생활까지도 포함된 것임을 나타 내고 있는데 비해, 주택에 관해서는 '세대 혹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 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⁷⁾.

3) 박광재, 과거에 그린 미래주택의 모습들, 건축 3월호, 1997, p. 8

4) 히라하라 모리야끼(1938)는 京都府立大學 학장으로 동경대학에서 공학박 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공분야는 주거 및 도시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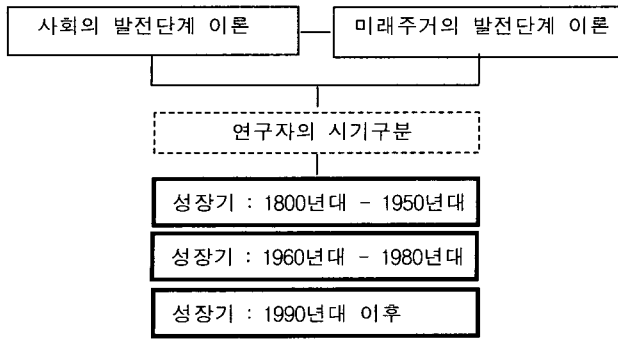
5) 1960년대는 영국의 아키텍그램(Archigram)과 일본의메타볼리즘(Metabolism) 등 미래지향적인 건축운동과 미래도시를 다룬 실험작품들이 가장 활발하게 거론되었던 시기이다(黒川紀章, 1984).

6) 신기철 외, 새우리말 낱사전, 삼성출판사, 1985

7) 전경배 외, 건축법규해설, 세진사, 1996

1)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 Toffler)는 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1만년전 농업혁명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제 1의 물결'로, 19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제 2의 물결'로,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거대한 기술사회적 변화를 '제 3의 물결'로 정의하였다(Toffler, 1990). 다니엘 벨(D. Bell)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산업 혁명 이전을 '선산업사회(preindustrial society)', 그 이후를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라 부르고, 제조업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에서 탈피하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사회를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 Naisbitt)는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 2000(Megatrend 2000)'에서 1990년대를 하나의 천 년대를 마무리 짓는 10년이자, 미래를 은유하는 2000년대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그 어떤 시기와도 다른 시대로 규정하였다.

2) 토마스 모어(1598-1639)의 유토피아(1516)나 캄파넬라(1538-1639)의 태양의 도시(1623), 프란시스 베이컨(1561-1626)의 뉴 아틀란티스 등과 같은 미래 의 이상세계(이상향)를 묘사한 글들이 르네상스 이후부터 등장하였다.



〈그림 1〉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발전과정 고찰을 위한 시기구분

영어의 'house'는 명확하게 가옥 즉 주택을 지칭하고 'resident'는 주거라는 의미 이외에 정주자, 거주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주택은 'house', 주거는 'resident'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택은 건물개념인데 비해 주거는 건물개념에 장소, 생활, 거주한다는 행위까지 포함되며 단순한 시설물이라는 물질 개념의 범위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미래주거란 앞으로의 생활과 거주방식, 장소에 대한 계획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의미로 사용되며, 미래주택이란 용어는 단순히 미래의 건축물을 지칭한다.

2. 미래의 개념과 미래예측에 대한 역사적 고찰

2.1. 미래의 의미

미래란 '앞으로 다가올 시간', '앞으로의 전망, 전도'로 정의할 수 있다. 간혹 미래는 현재보다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란 단어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하나 미래라는 단어 속에는 내일과는 다른 뉘앙스가 개입되어 있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음날이란 의미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맞이하는 시간대를 표현한 말로서 능동적인 행위보다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기대감이 개입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미래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개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교에서 미래의 세상을 나타내는 來世는 -:世(전세, 현재, 내세)의 하나로서 사후의 세계, 혹은 미래의 세계를 의미하며, 현재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담겨져 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은 서양의 이상향, 유토피아 개념으로, 20세기 이후 오늘날의 미래연구는 근본적으로 수천년 동안 있어 왔던 '이상향'에 대한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김형국, 1993).

유토피아의 어원이 'eu-topos(좋은 곳)'와 'ou-topos(존재하지 않는 곳)'의 합성어(김영한, 1983)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서양사에 있어 미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까지의 미래적 사고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초월적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추구한데 비해, 19세기 이후에는 시간개념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개입되어 나타난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인식은 강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21세기에 대한 장기전망이 속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근대 이후 자연과학의 혁신적 개발 때문이었다.

2.2. 미래예측과 미래관

일반적으로 평온하고 변화가 적은 시대에 그려낸 미래는 어느 정도 현실로부터 크게 유리되어 있지 않은 경향을 띠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급속한 시기에는 미래로 향한 기대가 크게 팽창하여 많은 미래예상이 행해지고 미래론이 형성된다(未來住宅硏究會, 1996).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 시기나 20세기 후의 시기는 미래예측이 활발하고 과학기술이 크게 약진한 획기적인 시대였다. 즉 전신, 전화, 축음기, 백열등, 자동차, 기차, 영화 등이 발명되는 등 새로운 기계문명의 시대를 암시하는 획기적 발견이 이룩된 시점이었다. 당시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다양한 시스템이 급속히 소개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꿈도 크게 팽창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미래에 대한 관심은 과학기술의 근원지인 구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01년(明治34년)에 新新聞(현재의 요미우리 신문)이 '20세기의 예언'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100년 후의 세계,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26개 항목으로 예상하여 게재된 바 있으며 상당히 적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⁸⁾.

이와 같이 100년을 내다 본 20세기 초의 예언은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것이었으나 이에 비해 최근의 예측은 10년 내지 20년 후를 예측하는 데도 신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후반부터 기계문명의 부정적 관점이 심각히 대두되면서, 자연에 눈을 돌리고 지금까지 형성된 사회와 제 시설을 재정비하는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도 제시된다. 이와 같이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 접근방법, 비전,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유토피아적 관점의 낙관론과 디스토피아적 관점의 비관론으로서 그 관점이 구분된다⁹⁾. 다음 <표 1>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

8)요미우리 신문의 100년후의 미래예상(1901년) : 7일간의 세계일주, 추위와 더위의 극복, 대도시지하 및 지상 고가도로 건설 등의 예상이 게재되었다(黑岩博之, 1993).

9)낙관적 미래관은 미래의 원동력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는 견해이며, 비관적 미래관으로는 자연과 환경파괴에 따라 대두된 환경과 자원제한론과 제조성장론, 사회적 한계론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장성수, 1996).

<표 1> 미래관 비교

낙 관 론	비 관 론
유토피아의 지향	유토피아의 증언
Technology 진보 신뢰	Neo-Malthusianism
성장지향	제로성장
확실성	불확실성
지구적, 우주적 스케일	인류적 차원 시스템 추구
large is beautiful	small is beautiful
fast is better	slow is better

3. 미래주거계획의 접근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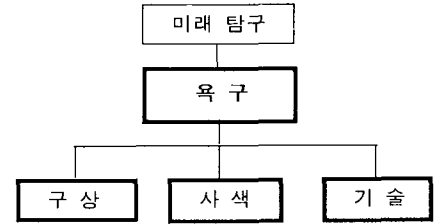
미래구상은 현존하는 상황과는 다른 변혁의 의미와 개선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미래주거의 제언은 그 변혁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그 변화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미래 구상을 사회에 발표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미래의 구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규범이 필요하다. 앞서도 밝혔듯이 미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비로소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문명의 진보를 위해 앞으로 향해 전진하여 왔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니며 이것은 극히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를 탐구하고 묘사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지향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욕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래를 어떠한 형태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창조력이 수반된다. 이러한 창조력은 과학과 기술의 힘을 차용하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예측이 분야간 상호협력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인 요구와 당위성, 관습 등을 연계시켜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래주거구상이 다가올 미래의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래구상에 논리성과 합리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사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미래의 구상에 있어서 욕구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묘사해 내는 수단으로서 구상, 기술, 사색 등이 동반되어야 함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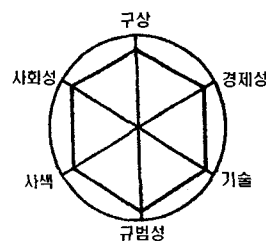
이와 함께 '채산성(경제성)', '사회적 인지(사회성)' 즉 범규와 사회적 통념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규범성'도 함께 요구된다. 사회성과 경제성도 미래구상의 입지와 조건의 설정에 따라서 지역의 한정된 이익이나 특수계층에 초점이 집중될 가능성이 많아, 넓은 차원의 사회적 규범성이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림 3>은 미래구상에 필요한 내용을 6개의 방사선 축으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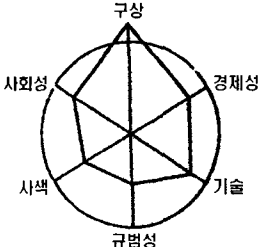
현한 것이며, <그림 4>는 구상에만 치우쳐진 상태에서 왜곡된 미래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미래탐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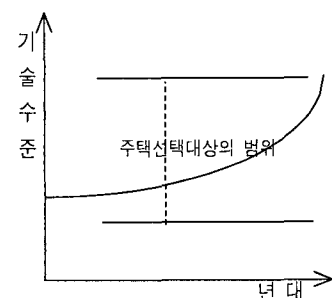
<그림 3> 이상적 미래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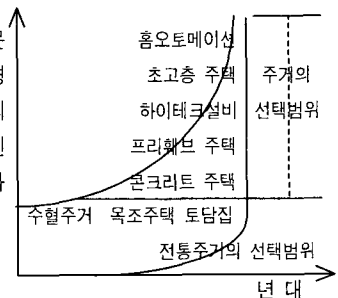
<그림 4> 왜곡된 미래표현

한편, 미래주거의 예측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주거의 선택폭이 전 시대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주거의 개념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주거의 양상은 오늘날처럼 다양하지 못했다. 실로 현대는 몇 가지 양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다양한 주거 개념이 공존하고 선호에 따라 그 양상은 더욱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 보면, 주택 선택폭의 변화와 주택기술수준의 변화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택폭의 다양성을 단순히 기술수준의 발전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만은 없다. 주거의 형식을 결정짓는 인자 속에는 사회적, 문화적, 차원이 보다 밀접하게 관여되기 때문이다.



<그림 5>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른 주택선택폭의 변화 추이



<그림 6> 문명의 진화에 따른 주거선택의 범위

결론적으로 미래주거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에 따른 사색과 구상이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해 뒷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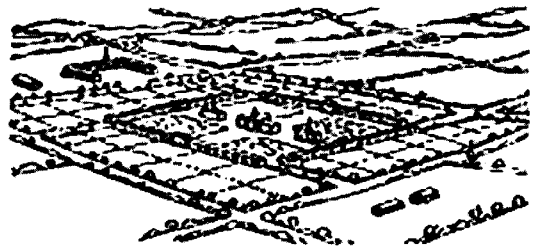
10) 黒岩博之, 未来住居, 青文社, 日本: 東京, 1983, p. 12

침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4. 태동기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전개과정

미래주거에 대한 본격적 제안은 19세기 전반부터 이루어졌다. 19세기 내내 주택문제는 급격히 팽창한 도시와 황폐한 농촌 어느 곳에 서나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공업도시내 주택지의 비위생적이고 인구과밀의 상태와 관련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상적인 주거단지에 대한 모델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Lawrence, 1987). 1920년대 이르러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자가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메트로폴리스에서의 고층주거에 대한 미래적 주거계획이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의 대량공급 체계의 필요성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업화 주택에 대한 제안들이 형성된다.

오웬의 이상도시는 맬더스(T. R. Malthus)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의 비판과 사회적 호응을 받지 못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정치적, 경제적 전제로부터 실제 건축계획과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근대적 주거단지 계획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의 이상적 사회를 향한 강한 실천의지는 이후 많은 건축가들에게 이상적인 주거타운조성에 대한 개혁정신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7> 오웬, 이상도시 모식도(1817)

4.1. 이상주거론

‘공동체 생활’ 개념의 이상적 주거 커뮤니티의 제안 배경에는 19세기 초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의 저변에 형성되었던 초기 사회주의적 개념이 내재해 있다. 19세기의 사회주의적 주장에 나타난 이상향은 미래라기 보다는 ‘아득한 과거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목가적인 공동생활’에 기초하고 있는 특성을 드러낸다(홍사중, 1981).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향은 농촌의 목가적인 전원생활의 이미지와 현대화 과정의 필수 불가결한 공업을 융합시킴으로서 당시의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는 빠른 인구의 유입으로 형성된 공업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적 이상주거론이 형성된다.

(2) 푸리에의 팔랑스테르(Phalanstere)

푸리에에는 1829년에 막연한 미래의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합리적으로 구성된 기능적 이상도시 팔랑스테르를 제안하였다. 이는 중심부에 공동생활을 위한 식당,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좌우날개부분에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배치하여 400가구 1,62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Armand, 1953).¹¹⁾

여러 사례 중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공업도시의 비합리성을 폭로한 급진적 이상주의자 오웬(R.Owen, 1771-1858)과 푸리에(C.Fourier, 1772-1837)에 의한 실험주거단지에서 비롯된다(Tafuri, 1975).

이와 같이 오웬과 푸리에로 대표되는 19세기 사회주의적 개혁가들이 수행한 연구와 실험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나 그것이 지닌 정치적, 경제적 함의는 희석된 채, 주거단지 계획의 기하학적이고 기술적인 함의만은 이후의 여러 계획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1850년대 계획된 르네상스적 이상도시를 연상케하는 존 버킹엄(J. S. Buckingham)의 빅토리아 주거단지 계획과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ies)¹²⁾ 등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에 제안되는 주거단지 실험에도 발상적 근원을 제공하게 된다(Benevolo, 1967)¹³⁾.

(1) 오웬의 이상도시(Ideal City)

영국 북웨일즈의 공장지대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조건을 직접 목격한 오웬은 동업자들과 함께 그 마을 전체를 사들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상도시(Ideal City)를 제안하였다(박광재, 1997).

4.2. 고층주거론

미래적 주거단지 개념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데 비

이상도시는 정사각형의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각형의 세면에 기혼자를 위한 주거유닛을 배치하고 사변형의 중심에는 기숙사를 지키는 감독들의 아파트가 있었다. 그의 혁명적 실험으로 처음으로 하수도 시설이 마련되었고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를 갖춘 청결한 주거단지가 조성되었다<그림 7>. 이처럼 혁명적 실험이 시도된 배경에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을 무지와 빈곤 속에 몰아넣지 않고도 사회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사회개혁적 주장이 담겨 있었다.

11) 18세기의 에언자(한기영 외, 1995)의 제 2장 ‘공동체 생활인의 꿈’에서 재인용.

12) Benevolo 저, 장성수 외 역, 근대도시건축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967, p. 132. 하워드가 제시한 전원도시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자족적인 커뮤니티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뉴타운 개념에 선구자를 이루었다.

13) 이상적인 거주자수로서 오웬이 제시한 1,200명과 푸리에가 제시한 1,620명은 르 꼬르뷔제가 유니테 다비띠시옹에서 제안한 거주자 수와 대체로 유사하며, 오웬이 제시한 1에이커당 인구밀도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을 받아들여 유토피아적 도시형태로 1932년 계획한 브로드에이커 시티(Broadacre City)에서 제안한 것보다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해 메트로폴리스에서의 고층주거 개념은 미국에서 파생되었다. 1811년 뉴욕의 맨해튼이 균등한 그리드로 양분된 후 인구 밀집과 지가 상승, 1853년 엘리샤 오티스(E. Otis)에 의한 엘리베이터의 등장으로 시카고와 뉴욕 등 미국대륙을 중심으로 마천루가 확산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 고층빌딩 개념의 확산은 고층주거 개념의 발전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Lawrence, 1987).

1911년에 이르러 마천루의 개념은 마침내 100층에 도전하였다. 테오도르 스테렛(T. Starett)이 계획한 100층짜리 마천루는 매 20층마다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분절되어 맨 아래 쪽부터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호텔로 구성된 주상복합개념의 초고층 빌딩으로 제안되었다<그림 8>.

한편, 유럽에서의 고층주거에 대한 발상은 1865년 노동자 주택을 위한 런던건설협회의 디자인<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거의 형식으로서 4-5층 이상의 다층주택들에서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고층주거론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1920년대 이후 마천루를 자본주의하의 미래적 환상에 의해 탄생되는 메트로폴리스의 상징물로 인식하는 측면이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이 메트로폴리스를 경제적 가능성의 최고의 단계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에 치우친 반면, 독일은 자본주의의 이행과정에서 표출되는 메트로폴리스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함께 지녔다(김원갑, 1992). 이와 같이 20세기 초의 문명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 사고는 19세기의 낙관적 신념을 상실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진보가 하나의 환상이었음을 자각하게 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김영한,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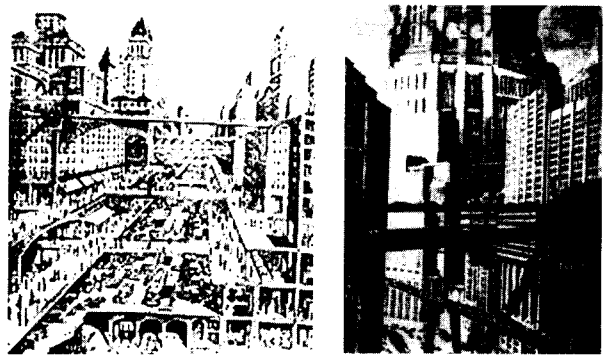


<그림 8> 스테렛, 주상복합 개념의 100층짜리 마천루(1911) <그림 9> 노동자 주택을 위한 런던건설협회의 런던건설협회의 디자인(1865)

1924년에 힐베르자이머(L. Hilberseimer, 1885-1967)는 고층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와 주상복합개념의 고층주거모델을 제안하였다. 흥미롭게도 그가 구상한 고층도시<그림 10>의 개념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4)'에서의 미래적 마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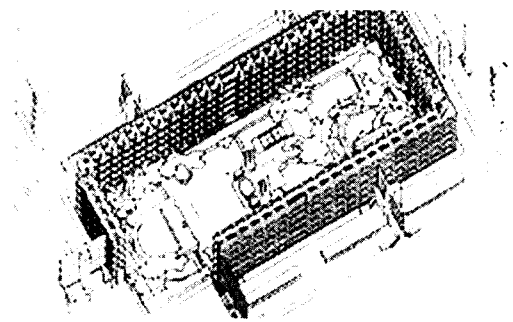
14) 김원갑(1995), 고층업무시설로서의 마천루역사, 건축세계 11월호, pp. 92-93. 영화 메트로폴리스에 나오는 마천루들은 건축가 출신 감독 프리츠 랑이 지

의 장면<그림 11>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거대하고 획일적인 고층건물이 도시를 형성하며 5층 이하 저층부에 상업과 작업장이 있고, 상층부는 도시근로자의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주상복합의 개념이다. 교통은 지하의 철도 네트워크에 의해 해결되고 상층부의 아파트들은 보행용 데크와 브릿지로 연결된다¹⁵⁾. 실내공간의 가구와 설비의 표준화 등으로 도시생활자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방 하나만을 들고 이사할 수 있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박광재, 1995).



<그림 10> 힐베르자이머, 고층도시(1924) <그림 11> 프리츠 랑, 메트로폴리스(1926)

이와 같은 계획안이 당시로는 실현이 어려운 미래공상적 모델이라 한다면, 20세기 초 이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현 가능한 모델로서 제안된 것이 1922년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의 '인구 300만을 위한 도시(Ville Contemporaine)'의 제안이다.



<그림 12> 코르뷔제, 삼백만을 위한 도시불룩형 집합주택(1922)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메트로폴리스적 유토피아 개념에 입각한 이 고층주거계획안은 맑은 공기, 녹색공원과 기하학적 배치 등을 소유한 주거단지를 묘사하였다<그림 12>.

그러나 유럽에서 메트로폴리스 내에서의 마천루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층주거론에

김 만은 세트디자인으로써 가공의 세계인데 비해, 미국에서 만든 영화 킹콩(King Kong, 1933)에서는 1931년 윌리엄 램에 의해 완공된 높이 300m에 102층으로 된 엠피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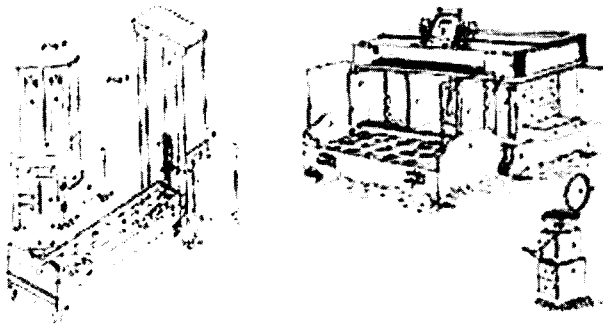
15) 브릿지에 의한 보행자 통로의 개념은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미래주택단지인 '넥스트21(NEXT21) 실험집합주택'에서 제안된 바 있어, 힐베르자이머의 제안은 20세기말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한 논의 역시 1920년대의 10년간으로 한정짓게 된다(김원갑, 1995).

4.3. 공업화 주거론

앞에서 밝혔듯이 19세기 초반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특히 도시 근로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개념과 주택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대량으로 공급되는 방식이 요구되었다.

주거공간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소규모 주거공간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형 가구에 대한 제안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그림 13, 그림 14>. 이후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노동자 주택의 최소기준에 관한 논쟁이 격렬해진 이래(Benevolo, 1967), 20세기 초기의 생활상은 불가피하게 최소한 공간적 기준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유도되었다(Frampton, 1980).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택복구와 노동자를 위한 주택의 대량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건설비의 한계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사비의 저렴화를 위해 공간은 최소화되고, 교묘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붙박이장과 접는 침대의 광범위한 사용과 함께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부역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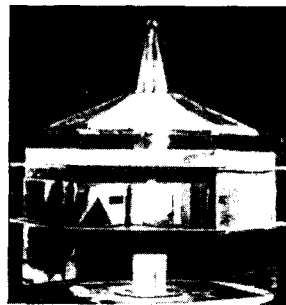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조립식가구 Wardrobe Bed(1859)와 Piano Bed(1866)

프리헤브식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메이스스템(May system)'을 제안한 에른스트 메이(E. May, 1886-1970), 살기 좋은 미래주거 연구에 반평생을 보낸 엔지니어 건축가 버민스터 풀러(R. B. Fuller, 1895-1983), 그리고 피에르 샤로(P. Chareau, 1883-1950) 등에 의해 미래지향적인 공업화 주택 계획안들이 소개되면서 조립식 시스템에 의한 주거의 가능성이 체제화되어, 장기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에 제기되는 미래주거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그림 15,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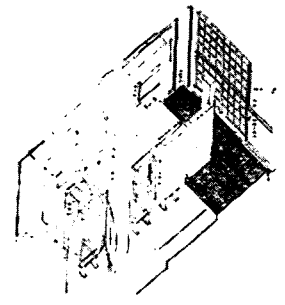
특히 풀러는 많은 주택계획안에서 가능한 모든 과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주거를 계획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술공학적인 설계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적이며 미래에 살기 좋은 주거를 만들자는 그의 제안은 '통일화, 조립화, 모듈화(unification, prefabrication, modulation)'의 세 단어로 표현되는데(이종건, 1991), 비효율적인 재래식 공법을 탈피하여 값싸고 능률적인 대량 생산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면서 미

적으로 만족을 위한 모듈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급진적인 미래주거로서 평가되는 다이맥시온 주택(Dymaxion¹⁶⁾ house)은 오늘날 기술적인 측면의 미래주거 개념으로서 간단한 구조에 경량화와 대량생산, 이동식 개념,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첨단장비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¹⁷⁾, 기능적으로도 최근의 주택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광현, 1997). 다이맥시온에서의 개념은 이후 40년 동안 선구적인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주택 디자인들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는 이 원리에 입각한 일련의 조립식 주택들이 10여년 동안 판매되어, 많은 욕실과 부엌 단위들이 조립되었고 전부를 공장에서 만들어 공사현장에 운반만 하면 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림 15> 풀러, 다이맥시온 주택(1927)



<그림 16> 샤로, 조립식 주택 Maison de Verre, Paris(1928)

이러한 미국의 발전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0년 동안이나 숙련공의 부족으로 시달린 후에야 조립식 주택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며, 1930년대 말까지는 이를 수행할만한 자원이 없었다. 독일은 1920년대에 조립식에 대한 실험적 작업이 이루어져 영국에 비해 훨씬 앞섰으나 1930년대는 새로운 주택개발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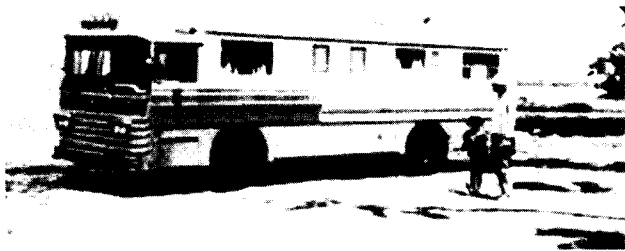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래 나타난 일시적 낙관주의는 1940년에서 1946년에 걸쳐 운반가능하고 공장 조립화되는 주택생산의 호황기와 맥락을 같이 하여 이후 새로운 개념의 주거에 대한 활발한 제안을 이루었다. 1960년대의 진보적인 디자인 그룹인 아키텍그램(Archigram)이 자신들의 계보를 1940년대에서 찾고자 했듯이 이 시기의 주택들은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었다(Pawley, 1971). 초기 조립식 주택 옹호론자들은 오직 전시(戰時)기간 동안의 생산의 촉진, 현장작업의 단축, 미개발 지역의 주택공급에만 조립식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했었던데 비해, 1940년대 이후에 등장한 기술신봉자들은 이동성을 중시하여 이동식 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단위를 제안하였다.

16) Dynamic, Maximum, Ion의 합성어이다. 풀러는 역동성과 최대한의 효율성이라 명명한 인종의 '살기 위한 기계(machine for living in)'를 1927년 완성하였다(Lampugnani, 1963).

17) 주택내부에는 자동세탁기, 발전기, 오수처리 탱크, 에어 컴프레서, 습도조절기 등이 집결되어 있어서 가사노동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타이프라이터,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레코드 플레이어, 농사관 등의 장비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등 미래주택에 요구되는 가능한 기술적인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동차 문명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예찬이 존재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있어서 자동차는 단지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이나 이동성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녔고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이동식 주택은 1960년 이전까지 미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그림 17>. 그러나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수행된 주택개발의 경제적인 장점이 강조됨으로써 이동주택의 성장은 억제되었다(Pawley, 1971).

이와 같이 1920년대 이후 전개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에서 나타나는 공업화 주거개념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주거 계획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17> 194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였던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이동식 주택(Mobile House)

5. 결론

미래에 대한 탐구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으며, 인간 삶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미래 탐구 또한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래와 미래주거의 개념 및 인식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미래주거의 계획 측면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제안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미래란 수동적인 개념의 내일의 의미와는 달리 개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미래연구는 수천년 동안 있어왔던 서구의 '이상향'에 대한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근대 이후 이루어진 자연과학의 혁신적 개발로 막연한 미래의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추구하였던 것에 그쳤던 18세기의 미래적 사고와 달리, 19세기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과 사회의 진보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개입되어 나타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인식은 강한 목표지향성을 갖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면서 21세기를 향한 장기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 2) 미래주거의 제안에 있어서는 그 변혁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미래주거의 탐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행동규범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중요한 추진에너지로 작용하고, 그것을 묘사해내는 수단으로서 구상, 사색, 기술 등이 동반되어야 하

며 이와 함께 경제성과 사회성, 규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이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미래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3) 미래주거에 대한 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19세기 초 제시된 마을공동체 개념의 주거론은 초기 사회주의의 지나친 이상주의에 치우쳐 실패로 끝났으며, 1920년대 말까지 제기된 고층주거론과 19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공업화 주거론은 당시의 경제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실현정도가 미비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 급진적 미래주거 및 현대의 공업화 주택의 발전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태동기의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인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미래주거 계획개념의 태동기로 보고 그 발전과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는 구미선진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미래주거 개념이 발전되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맞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연구와 정리작업이 본 연구에 이어 후속된다면, 미래주거 계획이론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아직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래주거 개념의 정립과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광현, 주택의 미래, 미래의 주택, 건축 3월호, 1997
2. 김성완, 미래주택실현을 위한 기술개발방향, 건축 3월호, 1997
3. 김영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3
4. 김원갑, 고층업무시설로서의 마천루의 역사, 건축세계 11월호, 1995
5. 김형국, 한국의 미래와 미래학, 남남출판사, 1993
6. 박광재, 과거에 그린 미래주택의 모습들, 건축 3월호, 1997
7. 신기철 외,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5
8. 안건혁, 미래의 도시, 건축 3월호, 1997
9. 이동성, 우리나라 주택의 현재와 미래, 건축 3월호, 1997
10. 이문섭, 21세기 공업화 주택의 공간구성과 조형성, 건축 9월호, 1993
11. 이상해, 기술의 진보와 주택의 미래, 건축 3월호, 1997
12. 이종건, 현대건축의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한 형태표현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3. 장성수, 우리의 삶을 담은 미래주택의 모습들, 건축문화 9월호, 1996
14. 진경배, 최찬환, 건축법규해설, 세진사, 1996
15. 한국어 사전편찬위원회, 한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1986
16. 한기영 외, 18세기의 예언자, 정음사, 1995
17. 홍사중, 근대시민사회 사상사, 한길사, 1981
18. Bell, D. 제 3의 기술혁명, 한국 통신기술 출판부, 1991
19. Benevolo, L.(1967), 장성수·윤혜정 역, 근대도시건축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996
20. Frampton, J(1980), 정영길·윤재희 역, 현대건축사(III), 세진사, 1986
21. Toffler, A. 이규행 역, 미래쇼크, 한국경제신문사, 1995
22. Lampugnani, V. M(1963), 김문터 외 역, 20세기 건축가와 사조, 도서출판 국제, 1988
23. Minkin, B. H, 구분형 역, 미래예측, 해남출판사, 1997
24. Malnar, J. M, Vodvarka, F(1992), 박영순 외 역, 인테리어 디펜션, 디

자인하우스, 1996

25. Naisbitt. J, 김흥기 역, 메가트렌드 2000, 한국경제신문사, 1990
26. Pawley. M(1971), 최상민 외 역, 근대주거이론의 위기, 태림문화사, 1995
27. Tafuri. M(1975), 김원갑 역, 건축과 유토피아, 기문당, 1988
28. 黒川純章, 윤병로 역, CIAM 붕괴이후 현대건축의 창조, 도서출판 국제, 1984
29. Davies D, High Tech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8
30. Lawrence. R. J, Housing, Dwelling and Homes, John Wiley & Sons Ltd., 1987
31. 21世紀を目指す住宅技術, 財団法人 日本住宅総合ヒソダ-, 1993
32. 黒岩博え, 未來住居, 青文社, 日本 : 東京, 1993
33. 未來住宅研究會 編, 住宅の 近未來像, 日本 : 學藝出版社, 1996

〈접수 : 1998. 2. 3〉